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

이재준**

-
- I. 머리말
 - II. 신라-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
 - III. 백제군의 대응과 병력운동
 - IV.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 전투
 - V. 백제 부흥군의 항전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을 군사적으로 검토한 연구다. 검토 결과 당나라 1,900여 척의 배와 13만 대군은 후속하던 유인케의 군량선 침몰로 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제 수군 창고를 공격하여 식량을 조달하고 연안 항해로 식수를 조달하였다. 그리고 공주 방향 내륙으로 기동하는 양공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령지역에서 가림도 행군총관 시철위를 조공 부대로 가림성 방향으로 투입하였다. 이후 본대가 서천-군산 양안을 확보한 후 소정방은 서천 앞바다가 아닌 금강의 석성천 일대로 상륙하였으며, 신라군과당군의 합류는 강경 일대가 아닌 석성면 현내리 일대였다. 신라 5만 군사는 당나라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경기도 이천까지 기동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백제군을 속이는 양동작전이 되었다.

백제는 신라군의 남천정 기동에 전쟁을 감지하고 병력을 동원하였다. 동원된 병력으로 누구를 먼저 칠 것인가 어전회의를 하던 중 신라군과 당군이 덕물도에서 회합 후 당이 백제 수군 창고를 공격하자 북방에서 공격해 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력부대를 투입시켰다. 주력부대를 조기 투입 시킨 백제는 황산벌 전투에 5,000명 밖에 보낼 수 없었으며 7월 9일 4번 싸워 이겼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였다. 같은 날 벌어진 당군과 웅진구[기벌포] 전투장소는 서천 일대가 아닌 석성천 일대였다. 이 두 전투 후 양군이 압박해 오자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하였으나 웅진방령의 반란으로 사비도성으로 끌려와 7월 18일 항복하고 말았다.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하지만 북방에 투입되었던 백제군은 충남 예산 임존성에서 거병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이어갔다. 백제 부흥전쟁은 당군과 신라군 17,000명이 점령한 사비도성 즉 웅진도독부를 2회에 걸쳐 직접 공격하였으며,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차단작전을 662년 8월까지 실시하였다. 하지만 부흥군 지휘부의 내분을 계기로 당과 신라가 총공세로 돌아서자 백제 부흥군도 고구려와 왜에 지원을 요청하여 백제-왜가 연합한 연합전략을 수행하였다. 결국 백제는 백강구 전투에서 대패 후 주류성과 임존성이 무너질 때까지 3년 4개월간 부흥전쟁을 지속하였으며 663년 11월 최종적으로 멸망하였다.

주제어 : 소정방, 김유신, 계백, 의자왕, 백제 부흥전쟁

I. 머리말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660년 7월 9일 신라와 황산벌에서, 당나라 소정방과는 기벌포 [웅진강구]에서 최초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개전 후 10일 만인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허약한 나라가 아닌 백제¹⁾가 단 10일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다. 연구자들은 백제멸망 원인을 백제 지배층의 분열 때문에, 의자왕이 말년에 황음무도에 빠져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혹은 당과의 외교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등 정치, 외교사적 측면에서 그 이유²⁾를 찾고 있다. 하지만 백제가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하고 10일 만에 무너지게 된 이유를 정치·외교적 이유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여하튼 백제의 멸망은 7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의 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백제멸망 전쟁의 주요 수단인 전략과 전술 등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연구보다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성과도 상당하다. 백제 단기 멸망의 원인을 당나라와 신라의 기만 전략에 속아서,³⁾ 전략 요충지인 탄현과 기벌포를 막지 못했고 수도의 방어중심이 짧아서,⁴⁾ 당군과 신라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에 실패해서,⁵⁾ 당나라의 양공작전과 신라의 양동작전에 속아서,⁶⁾ 주력부대를 북

- 1) 7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전쟁은 백제의 선제공격과 신라의 방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국력과 군사력에서 백제가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이문기, 2016, 195쪽) ; “請伐百濟以大梁州之役 王曰 以小觸大 危將奈何”(『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상).
- 2) 김수태, 1991 ; 김주성, 1988 ; 이병렬·조기호, 2003 ; 양종국, 2021.
- 3) 이상훈, 2016, 59, 69쪽.
- 4) 장학근, 2002, 202쪽.
- 5) 서정석, 2010, 24쪽.
- 6) 이재준, 2017, 30~57쪽.

방으로 조기투입하는 전략적 실패⁷⁾ 등 군사작전 실패에서 찾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소정방의 13만 당군이 덕물도에서 사비도성에 도착하기까지 20일 동안의 행적이 미스터리 하다. 소정방이 상륙한 지점에 대해서도 기벌포로 비정되는 서천이라고 하거나 군산이라고 하지만 고대 군대의 행군거리를 고려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⁸⁾이다. 신라와 당군의 합류 지점을 대체로 강경일대로 보는 견해는 공격하기 전에 논산천을 도하 하여야 하므로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백강=웅진(강)구 전투는 탄현과 백강의 위치 비정이 다양하여 혼선이 많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백제군의 대응은 사료에 기록된 조정(朝廷)의 격론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사료를 재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 백제멸망 전쟁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가능한지 객관성이 담보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이에 본고는 당시 전장 상황 재현을 위해 식량과 식수 조달, 일일 행군 가능 거리, 무기체계, 군사제도, 정보활동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후대사료나 구전 자료는 물론 금석문에서도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백제멸망 전쟁에서 미스터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낸다면 단기 멸망의 이유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

먼저 당군의 전략을 살펴보자. 660년 3월 당 고종의 백제 출정 명령을 받은⁹⁾ 소정방은 좌위장군 유백영, 우무위장군 풍사귀, 좌효위장군 방효태 등 3명의 주요 장군을 인솔, 당군 13만 명을 1,900척의 전함에 태우고¹⁰⁾ 6월 18일 성산(래주)를 출발하여 6월 21일 덕물도에 도착하였다. 이날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신라의 태자 김법민에게 “7월 10일 백제의 남쪽에서 만나 의자의 도성을 깨뜨린다.”¹¹⁾는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나는 해로로 가고 태자는 육로로 가서 백제왕도 사비성에서 만나”¹²⁾는 양군의 기동방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런데 당군은 산동반도에서 덕물도까지 305km를 3일 만에 항해하였다. 덕물도에서 부여

7) 박노석, 2010, 360~371쪽 ; 이상훈, 2016, 61~68쪽 ; 이재준, 2017, 61~74쪽.

8)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등 사료에 의하면 소정방은 7월 9일 기벌포=웅진강구=웅진구에 상륙하여 전투를 벌이고 수륙병진으로 7월 10일 신라군과 약속한 합군지점인 사비도성 남쪽 20리~30리 지점에 하루 만에 도착하였는데, 서천에서 부여까지는 50여 km, 군산에서는 60여 km나 되어 이 거리는 수륙병진으로 갔다고 했는데 하루에 약 12km를 간다는 고대 군대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9) 『구당서』 권4, 본기4 ; 『신당서』 권3, 본기3 ; 『자치통감』 권200, 당기16.

10) 『구당서』 『자치통감』에 수록 10만명, 『삼국사기』는 13만 명, 『삼국유사』에는 12만 2,711명 배는 1900척으로 명시되어 있다.

1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년.

12)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사비성까지는 210km다. 고대 선박 평균 속도¹³⁾로 치면 31시간이면 도달할 거리를 20일 뒤에 도착하였다. 7월 9일 상륙 당일을 빼면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17일 동안 당군의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의견이 분분하다.¹⁴⁾ 과연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소정방이 인솔한 1,900척에는 군량선이 몇 척인지 기록이 없다. 유사한 사례로, 645년 당이 래주로부터 요동반도 남쪽인 고구려 비사성을 공격할 때 4.3만의 병력은 전함 500척에 군량은 400척에 실었다.¹⁵⁾ 고구려 비사성 공격 사례를 적용하면 배 1척당 86명이 탑승했으므로 13만 명이면 1,512척이 필요하다. 그러면 1,900척 중 병력 탑승선을 제외하면 388척이 남는다. 비사성 공격비율로 군량선 1,209척이 필요한데 388척은 1/3수준도 안 된다. 후속하던 유인개의 군량선은 바다에서 좌초되어 도달하지 못했다.¹⁶⁾

당시 병사 1인이 소비하는 군량은 2승(升)¹⁷⁾으로 13만 명은 하루에 26만 승이 소요된다. 쌀 1석(石)은 150승이므로 하루에 1,734석이 되고 20일 이면 34,6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량이 필요하다. 식수도 문제다. 1인 1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2.1~3.2l이다.¹⁸⁾ 최소로 계산해도 13만 명이면 하루에 273톤이 필요하며 20일이면 5,460톤이 된다. 용기도 부족한 당시 서해횡단 3일간의 식수만 적재하고 항해했을 확률이 높다. 더욱이 6월이면 여름철로 더 많은 식수가 필요했을 것이다. 말먹이 건조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군량과 식수를 조달하기 위해 수시로 육지에 상륙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후대사료나 구전되는 전설 등에서 확인되는 흔적들이 있다.

A-①. 5월 고구려가 송산성(松山城)을 치다가 항복 받지 못하자 석두성(石頭城)으로 옮겨 습격하여 남녀 3,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¹⁹⁾

A-②. 면주도경(沔州圖經)에 의하면 삼국시대 평양[고구려]과 백제가 서로 석두성 창고를 공격하여 취하였다. 석두성은 [백제]수군(水軍) 창고였다. 지금은 가리저 동쪽에 있다. 당(唐) 현경(顯慶) 중에 당군이 바다로 건너와 난리로 창고를 폐지하였다. 신라가 평정한 뒤에 석두에 창고를 설치

13) 1123년 항해속도는 최대 8.75km/h, 평균 6.29km/h, 최저 4.3km/h이다 (윤일영, 2009, 224-226쪽).

14) ① 동진강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② 백제와 신라가 전투개시를 했을 것을 계산하여 시간을 끌었다. ③ 후미의 당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전열을 정비했다. ④ 20일은 당군의 작전시간이 아니라 보급부대인 김유신의 이동시간이다. ⑤ 신라군과 조율을 거쳐 백제 수군기지를 선제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는 시간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15)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3년.

16) 『資治通鑑』唐紀16 高宗 顯慶 5년 11월 “靑州刺史 劉仁軌는 바닷길의 운송을 감독하다가 배가 뒤집혔던 사고에 연좌되어 [고구려 공격에] 白衣從軍하였다” ; 『資治通鑑』唐紀17 高宗 乾封 원년 “백제를 토벌하게 되자 유인개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군량을 운반하는데 ... 바람을 만나서 배를 잃고 빠져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 는 기록은 백제 침공 시 유인개가 군량 해상수송 책임자였다.

17) 孫繼民, 1995, 320쪽.

18) 2015 미국 국가연구 심의회(NRC) 권장량(김은영, 1989, 390쪽).

1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18년 ;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무왕8년.

하였다.²⁰⁾

A-③. 백제 의자왕 20년에 당 소정방이 덕물도에 주둔하였고, 당진에 상륙하여 정박하였다.²¹⁾

면주는 충남 당진이다. 위 사료로 볼 때 당진에 백제 수군 창고가 있었으며, 소정방이 공격하여 군량을 탈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진의 대호지면 적서리에 “방구암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시대 당군의 일부가 송악면 한진으로 상륙하고, 일부는 난지도를 경유하여 내륙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방구암으로 상륙하였다. 백제군이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다 격퇴하여 당군은 강건너 당진포리에 상륙하였다.”²²⁾ 비록 전설이지만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및 식수를 탈취하게 되면 군량이 부족하다는 허점이 노출된다. 이를 기만하기 위한 작전이 필요하다. 즉 통상적인 공격작전이 아닌 ‘한계선이 있는 기동’과 같은 제한적인 공격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공작전이였다.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천방사 전설이다. “소정방이 안개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산신께 치성을 드리며 천 채(방)의 절을 짓겠다고 약속하자 안개가 걷혔다.”는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설 지역이 6개소나 되며, 위로부터 예산군 대술면, 공주시 탑곡리, 청양군 대치면, 보령시 미산면, 서천군, 군산시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실제 절터나 시루편 등이 발견되고 있다.²³⁾ 이 외에도 부여군 석성면 파진산 정상에 넓은 공터가 있어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만 명의 군사를 숨겨놓았다는 장군동 전설이 있다.²⁴⁾

『여지도서』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안개 속에서 헤매던 중 바둑을 두는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으므로 노인들의 목을 치고 갔다는 군산지역의 오성산 전설이 있다.²⁵⁾ 국토정보지리원 발행 『한국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인천 남동구 소래산(蘇來山)은 삼국시대 말에 소정방이 머물렀기 때문에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²⁶⁾ 지리적으로 덕물도에서 소래산까지 소정방의 흔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지역 위치를 도식하고 지형분석²⁷⁾을 통해 기동계획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20) 『증보문헌비고』 권33, 여지고21, 당진.

21) 『대동지지』 권5, 당진.

22) 윤명철, 2012, 2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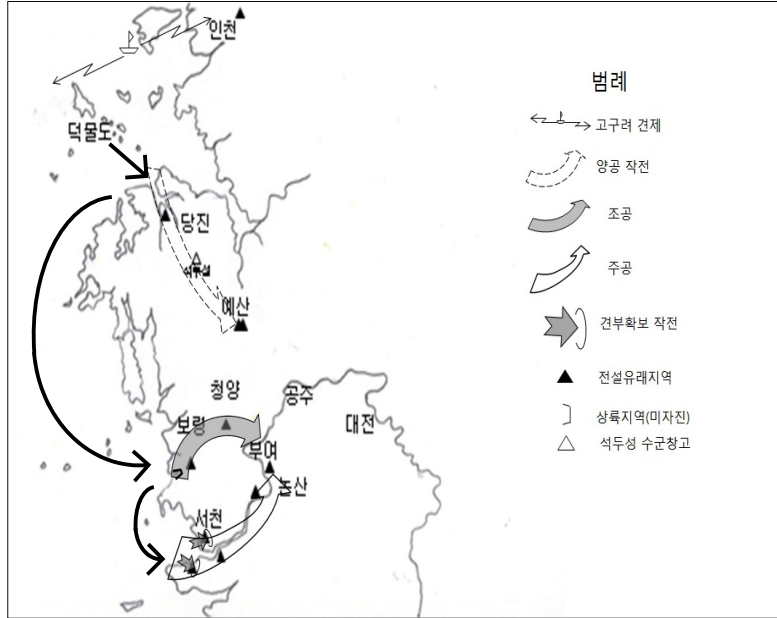
23) 황인덕, 2000, 205쪽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옥구현, 불우조.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석성현, 산천조.

25) 『여지도서』 보유편, 전라도, 임피현 고적조.

26) 국토지리정보원, 2008, 174쪽.

27) 지형분석 결과 사료지역과 전설지역이 일치하였다(이재준, 2017, 49~57쪽).



[그림 1] 당군 기동계획 추정도²⁸⁾

그림을 설명하면, 우선 덕물도에서 소래산 사이에 고구려 수군을 견제하는 차장부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식량 확보를 위해 당진포리에 상륙하여 사료 A와 같이 면천 석두성의 백제 수군창고를 공략하였다. 그리고 천방사 전설 지역인 예산 대술면을 거쳐 공주 유구읍 탑곡리까지 백제를 기만하기 위한 기동을 했을 것이다. 이후 당진으로 복귀한 당군은 당진에서 보령 앞바다로 이동하여 조공부대를 투입했을 것이다. 『일본서기』에 당군이 진을 쳤다는 미자진(尾資津²⁹⁾을 보령 부사방조제의 미조포(彌造浦)로 비정³⁰⁾하고 있으며, 금석문에서 확인된 ‘시철위(柴哲威)가 가림(加林)도행군총관’³¹⁾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림성(加林城)인 임천면 성흥산성 방향 기동은 조공부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일단의 부대가 서천과 군산 등 양안을 확보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정방의 본대가 금강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당군의 전투 또는 기동이 전설 서천군과 군산시 등에 천방사 전설이 전승되는 배경일 것이다. 검토된 당군 기동계획의 상륙과 해상 및 육로 이동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약 17일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³²⁾

신라군의 기동을 살펴보자. 신라의 무열왕은 660년 3월 당 고종으로부터 우이도(岫夷道)행

28) 이재준, 2017, 57쪽.

29) 7월 10일 소정방이 수군을 이끌고 尾資津에 진을 쳤다(『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6년 9월).

30) 충남역사문화원, 2008, 177쪽.

31) 1997년 김천 미륵암에서 발굴된 금석문에 柴將軍이 당 황제 친척이며 加林道行軍總管으로 임명되었고, 후에 황제로부터 함자도총관을 부여받았다고 되어 있다(민덕식, 2002, 159쪽).

32) 이재준, 2017, 54~56쪽.

군총관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성원하도록 칙명을 받았다. 이에 5월 26일 유신·진주·천존 등과 함께 경주를 출발하여 6월 18일 경기도 남천정에 도착하였다. 6월 21일에는 태자 법민을 보내 병선 1백 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소정방의 작전 지시를 들은 법민이 돌아와 무열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대장군 유신과 장군 품일과 흠춘을 시켜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왕은 금돌성(金堞城)에 머물렀다.³³⁾

고대 경주에서 이천에 이르는 길은 추풍령로와 죽령로 및 계림령로 3개가 있다.³⁴⁾ 세 루트 중 신라군은 비교적 험하지 않으며 백제와 국경지대이자 많은 관방(關防) 시설인 산성이 많은 추풍령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³⁵⁾ 한편 신라군 5만 군사가 모두 이천까지 가지 않고 지휘부만 다녀왔을 것³⁶⁾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신라군은 소정방의 백제 공격방안 즉 합군 지점 등을 몰랐으며, 행군 속도 등이 정상적이었음을 고려하면 5만 군사가 모두 이천까지 올라갔다³⁷⁾고 판단된다.

문제는 신라가 왜 이천까지 기동했다가 다시 남하했는가 하는 이유이다. 연구자들은 각 지역의 동원체제를 점검하려는 목적 등 신라 위주로 설명³⁸⁾하고 있으나 군 지휘계통상 소정방의 명에 의한 기동이었으며, 처음부터 당의 저의(底意)³⁹⁾에 의한 기동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백제를 기만하거나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기동이라고 하지만 기만 기동은 배후를 공격당할 우려가 있고 견제를 위해서라면 기만 기동보다는 병력 배치가 효과적이다.

따라서 신라군의 남천정 기동은 당과 신라군이 백제가 신라-당 연합군이 북방에서 합류하여 공격할 것으로 오판하도록 하는 기만 전략 즉 양동작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 이야기다. 실체는 당의 신라군 힘 빼기 전략일 가능성이 더 농후해 보인다.

3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년.

34) 추풍령로는 경주~영천~선산~상주~화령~보은~진천~이천으로 연결되며 죽령로는 경주~의성~단동~죽령~단양~충주~이천으로, 계림령로는 상주까지는 추풍령로와 같으나 상주~문경~충주~이천으로 연결된다(서영일, 1999, 342쪽).

35) 이재준, 2017, 31~33쪽.

36) 김영관, 1999, 176~179쪽.

37) 경주에서 이천까지 268km를 23일간 행군하여 11.6km/일로 행군하였고 이천에서 부여까지 209km를 17일간 행군하여 12.2km/일 행군하는 등 기병위주의 지휘부와 달리 정상적인 속도였고, 주력부대를 백제 국경지대에 대기시켰다면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제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 것이므로 5만 군사가 모두 이천까지 기동하였다(이재준, 2017, 34~36쪽).

38) 군사동원체제 점검(노중국, 2003, 46쪽), 고구려 지원병 차단(홍사준, 1967, 36, 66쪽 ; 장미애, 2013, 136쪽), 기만을 위한 노림수(이상훈, 2016, 53쪽 ; 2012, 103~108쪽 ; 박노석, 2010, 360~367쪽).

39) 「풍사훈비」에 나타난 소정방의 직책이 계림도행군대총관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백제를 멸한 후 신라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Ⅲ. 백제군의 대응과 병력운용

사료상에서 나당 연합군의 침공 당시 민심이 이반 되었다거나 군사 체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도 군신회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해석하여 백제가 내부 분열로 백강과 탄현에 군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제의 군신회의 내용은 면밀히 살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분석해봐야 한다.

B-①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나라 서쪽 덕물도에 이르렀다. 신라왕이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한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백제로] 나아가게 하였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신(群臣)들을 모아 싸우는 것이 옳으나 지키는 것이 옳으나(問戰守之宜) 물었다.

좌평 의직(義直)이 나서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배에서 반드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상륙하여 사기가 평온하지 못할 때 급히 공격하면 가히 뜻을 이룰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대국의 지원을 믿고 있어 우리를 가벼이 여기고 있으므로, 만일 당나라 군사가 이롭지 못함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감히 기세 있게 진격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하여야 옳을 줄 압니다.”

달솔 상영(常永) 등이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왔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예봉을 감당하기 불가합니다. 신라 군사들은 전에 우리 군사에게 여러 번 패배하였으므로 지금 우리 군사의 기세를 바라보면(今望我兵勢)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마땅히 당나라 군사의 길을 막아 그 군사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를 시켜 신라군을 공격하여 예기(銳氣) 꺾은 후에 그 형편이 가능하면 세력을 합하여 싸우면 군사와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B-② 왕은 주저하며 어느 의견을 따를지 몰랐다. 이때 좌평 흥수(興首)가 죄를 지어 고마미지현(古馬彌知縣)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기를 “사태가 위급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였다.

B-③ 흥수가 말하였다. “당병은 수가 많고 군율이 엄정하며 신라와 함께 호응(掎角)하는 상황이니 만약 평원광야(若對陣於平原廣野)에서 대진한다면 승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백강(白江)[혹은 기벌포(伎伐浦)라고 한다.]과 탄현(炭峴)[혹은 침현(沈峴)이라고 한다.]은 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가 한 자루의 창으로도 만 명을 당해 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용감한 병사를 뽑아 가서 지키게 하여, 당군은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대왕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식량이 떨어지고 사졸이 피곤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공격하면 반드시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신들이 불신하며 말하였다. “흥수는 오랫동안 잡혀 간혀 있었으므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군이 만약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면 물흐름으로 배를 나란히 할 수가 없고, 신라군이 탄현에 오르면 좁은 길을 따라 병마가 가지런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병사를 풀어 공격하면 조롱 속에 있는 닭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그럴 듯이 여겼다.

B-④ 또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已過白江·炭峴)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階伯)을 보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가도록 하였다.⁴⁰⁾

위 사료 B는 백제의 방어전략 회의다. 시기는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뒤부터 계백을 황산벌에 보낼 때까지다. 일정으로 보면 6월 21일 이후부터 7월 7일까지⁴¹⁾ 약 17일 정도로 추정된다. 기사 내용을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B-①, ②, ③, ④로 나누어진다. 먼저 B-①은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하고 신라군이 이천에서 남하하기 시작한 때다. 의자왕이 “싸우는 게 옳으냐 지키는 게 옳으냐?” 물었다. 싸우는 것은 공격에 주안을 두고, 지키는 것은 농성, 협상, 화해 등에 주안을 둔 듯하다. 하지만 의직은 당군을 먼저 치자고 했고, 상영은 신라군을 먼저 치자고 했다. 둘 다 앉아서 지키기보다 나가 싸우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신라-당 연합군이 북쪽에서 합류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백제는 서북방 방어에 신경을 쓰며⁴²⁾ 주력군을 북상시켜 어느 지역에 주둔⁴³⁾해놓고 당과 신라중 누구를 먼저 공격하는 게 나은지 하는 토의였다.

백제의 군사력을 가늠해 보자. 사비시대 군사제도는 중앙의 5부제와 방(方)-군(郡)-성(城) 체제였다.⁴⁴⁾ 사비도성에 2,500명의 시위대가 있고 사비도성 주위 산성에 별도의 10,000여 명 중앙군이 있었다.⁴⁵⁾ 지방의 방에는 1,200~700명의 군사가 있고 달솔이 지휘하며 5개 방이므로 총 3,500~6,000명이었고 예하 30~50개의 군과 200~250개 성의 병사까지 합하면 백제는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보기도 한다.⁴⁶⁾ 한편 평상시 신라를 공격할 때 출동 병력은 보기(步騎) 1만에서 큰 규모는 3만, 4만까지이다. 이때 최고 지휘관은 좌장(左將)이나 좌평(佐平)이었고 장군이 출전하기도 하였다.⁴⁷⁾ 때로는 백제는 전국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였다.⁴⁸⁾ 당시 사료에 나타난 백제군은 황산벌 전투에서 5,000명, 웅진구=기벌포 전투에서 수천 명, 사비도성 전투에서 10,000여 명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압송된 1만여 명⁴⁹⁾을 군사로

40)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41) 계백이 7월 9일 이미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김유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황산벌까지 26km의 이동과 전투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7월 7일에는 출발하였을 것이다.

42) 이상훈, 2016, 68쪽.

43) 박노석, 2010, 368쪽.

44) 백제는 온조왕 때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병제(皆兵制)를 시행하였으며 군사·행정적인 통치구획으로 4부제를 실시하였다. 고이왕 때 중앙군과 지방군이 성립되었고 이후 담로제를 거쳐 중앙 5부제 및 지방 방·성·군 체제가 확립되었다.

45) 이문기, 1998, 304쪽.

46) 김종수, 2007, 206쪽.

47) 박현숙, 1998, 56쪽.

48)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14년 “553년 백제 왕자 여창(黎昌)이 나라 안의 군대를 모두 징발하여 고구려로 향하였다.”

49) 당으로 압송된 인원이 「신라본기」와 「백제본기」는 백성 1만2천, 「김유신전」에는 군사 2만, 「구당서」에는 위장(僞將)58인, 「신당서」는 주장(酋長) 58인, 「대당평제비」에는 왕자 효 등 13, 좌평 등 700여 인, 「일본서기」 제왕자 13, 좌평 등 37, 범 50여 인 등 다양하다.

보아도 모두 합하면 3만여 명이다. 백제군의 수를 최하 6만여 명으로 본다고 해도 남은 3만 명의 행적은 기록에 없다.

6만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 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신라는 관방시설이 많은 추풍령로를 따라 경기도 이천으로 올라갔다. 추풍령로의 백제와의 국경지대인 충북 옥천 보은지방을 6월 11일경 통과하였다. 백제의 우술성과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세작이나 간첩활동 등 첩보활동이 일상화 되어 있던 삼국 항쟁 시대에 30km 밖에서 5만 군사가 행군하는 것을 백제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⁵⁰⁾ 이때 백제는 전쟁을 감지하고 병력을 동원, 집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B-①에서 상영이 “우리의 기세를 바라보면(今望我兵勢)”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B-①의 토의는 백제군의 주력이 서북방 어딘가에 주둔하면서 당과 신라 중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토의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B-②와 B-③ 기사의 시간 차이를 살펴보자. 의자왕이 전남 장흥의 고마미지현의 홍수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았다. 부여에서 장흥까지는 274km로 최소 5일은 걸렸을 것이다.⁵¹⁾ 화급을 다투는 전장에서 5일은 엄청난 기간이다. 당과 신라가 서북방에 있을 때부터 토의하였는데 적들이 5일 동안 정지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백제도 5일 이상 방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나 조치가 분명 있었는데 사료에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는 앞서 사료 A-②, ③와 같이 당군이 당진 면천에 있는 백제 수군 창고를 공격하자 당진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남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백제군이 서북방⁵²⁾ 즉 당진 방면으로 투입되었을 것이다. 주력부대가 북방으로 투입되어 있었기에 신라군과 당군의 황산벌 및 기벌포 등 기습공격에 백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⁵³⁾ 또한 주력군 투입을 위한 방·성·군의 백제군이 동원되었기에 충남에만 234개나 되는 백제 산성⁵⁴⁾에서의 전투가 전혀 없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백제가 군사적으로 기만 작전에 속아 주력군을 북방으로 조기 투입⁵⁵⁾ 시켰다고 판단된다. 임존성에서 거병한⁵⁶⁾ 백제 부흥군들을 신라본기에 남은 적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을 북방에 조기 투입된 병력으로 추정되는 기사를 살펴보자.

50) 이재준, 2017, 63쪽.

51) 장거리 통신수단이었던 역참제도가 백제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나 말이 운송 수단으로 쓰인 것은 기원전 1300년 은허 시대부터이고 신라가 소지마립간 9년(487)에 우역(郵驛)을 설치했다는 기록을 볼 때 백제에도 우역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을 것이며, 『고려사』에 하루 6개역 180리를 달리는 과발마가 주야로 달린다면 일일 360리(129.6km/일) 달렸다고 사실상 어려운 가정을 해도 강진까지는 왕복 4.4일 즉 5일 이상이 소요된다.

52) 이상훈, 2016, 68쪽.

53) 박노석, 2010, 369쪽.

54) 백제산성은 충남 234개, 경기도 119개, 전남북 204개로 테메식이며 해발 100~200m에 위치한 공격용 거점성 보다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산성들이다(서정석, 1992, 115~116쪽).

55) 박노석, 2010, 360~371쪽 ; 이상훈, 2016, 61~68쪽 ; 이재준, 2017, 61~74쪽.

56) 임존성 거병은 황복한 7월 18일 이후부터 소정방이 공격한 8월 26일 사이가 될 것이다.

C-① 이때 서부 은술 귀실복신이 매우 분개하여 입사기산에 응거하고 ...군영을 만든 뒤 각각 흩어진 군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전 싸움에서 무기를 다 잃었기 때문에...얼마 후 백제 군사들이 다시 날래고 용맹해져서 당이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국인(國人)들은 ‘좌평 복신, 좌평 자진’ 이라고 높여 불렀습니다.⁵⁷⁾

C-②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별부장 사타상여(沙陀相如)와 더불어 험고한 곳에 응거해 복신(福信)에게 호응하였다.⁵⁸⁾

C-③ 흑치상지가 ... 도망가고 달아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鳩集亡逸] 임존산을 지키며 책을 구축하니 10일 이내에 돌아온 자[歸附者]들이 3만이었다. 소정방이 군대를 보내 공격하였으나 상지가 용맹스럽게 싸워 관군이 패배하였다.⁵⁹⁾

C-④ 상지가 ... 잡혔다가 도망한 사람들을 불러 합하여[囑合捕亡] 임존산에 의지하여 굳게 지키니 열흘이 안 되어 돌아온 사람이[歸者] 3만이었다. 소정방이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⁶⁰⁾

사료 C-①을 보면 복신이 최초 거병하였고 사료 C-②와 같이 흑치상지가 복신에게 호응하였다. 그런데 C-①에서 흩어진 군졸들을 불러 모았다거나 이전 싸움(兵盡前役)⁶¹⁾이라는 표현에서 백제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③, ④에서 비둘기 소리(鳩集亡逸), 휘파람 소리(囑合捕亡) 등은 군에서 사용되는 신호라고 가정하면 백제 정규군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진 방면으로 조기 투입되었던 백제군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⁶²⁾ 임존성의 3만 부흥군이

57) 『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6년 9월.

58) 『자치통감』 권201, 唐紀 17, 龍朔 3년 ; 『신·구당서』도 동일하다.

59) 『구당서』 권109, 열전 53, 흑치상지.

60) 『신당서』 권110, 열전 35, 흑치상지.

61) 이전 싸움은 먼천 수군창고-예산군 대술면-공주시 유구읍 탑곡리로 축선의 기만 기동, 양공 작전하는 당군과 조우하여 싸웠을 가능성도 있다.

62) 북방으로 투입된 주력부대가 북방에 도착했을 때 당군은 빠져나간 것을 알고 복귀하던 중 임존성 부근에서 항복 소식을 듣자 거병하였을 것이다. 복신의 거병은 의자왕이 항복한 7월 18일 이후, 흑치상지의 호응은 의자왕의 항복례를 행한 8월 2일 이후부터 소정방이 공격하는 8월 26일 사이로 추정된다. 연구자들은 복신이 서방성의 방령이고 병력은 서방성의 유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존성이 백제의 서방성인지 확인이 안 되며 1개 방의 방령군은 1,200-700명으로 3만이라는 숫자와 너무 차이가 난다. 한편 방령군은 달술이 지휘하는데 복신의 관등이 은술로 기록된 것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 흑치상지는 대대로 달술로서 서방성 예하 풍달군의 군장이었다. 그런데 복신에게 호응했다고 한 사실을 보면 복신이 달술보다 상위 계층이었을 확률이 높다. 물론 복신의 관등은 은술 한술 또는 옛 장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의 입장에서 복신을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옛 장군이라는 관등이 주목된다. 과거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좌장 또는 장군이 지휘하여 출전한 사례가 있으며 한 연구에 의하면 장군이라는 호칭은 출정 시에만 임시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사비시대에는 하나의 관직명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복신은 무왕의 조카로서 백제의 주력인 일부 중앙군과 지방군을 장군으로서 인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농민이나 백제 유민이었다면 소정방이 이기지 못했을 리 없다. 유민 중에 백제 정규군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소정방이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정리하면, 백제는 신라군의 5만 군사가 북상하는 6월 11일경 병력을 소집했다고 추정된다. 의자왕이 “싸워야 하나 지켜야 하나?” 물었을 때 다 같이 싸울 것을 천명했다. 단지 신라군과 당군 중 누구를 먼저 쳐야 할지 논쟁하였다. 이때 당군이 먼천 백제 수군 창고를 공격하자 북방에서 합류하여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진 방면으로 주력군을 조기 투입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백제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당군을 빠져나간 듯하며 백제군은 복귀 중에 임존성 부근에서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듣고 거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백제는 지키기보다 싸울 것을 택했으나 당군의 기만 전략, 양공 작전에 속아 주력부대 조기 투입이라는 과오를 범했다. 결국 기벌포(웅진강구)와 황산벌까지 기습적으로 도달한 나당과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 전투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웅진강구] 전투는 신라와 당군이 7월 10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사비도성(백제의 남쪽)으로 기동하던 중 7월 9일 벌어진 전투이다. 두 전투에 대한 견해가 연구자마다 다양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D-① 또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已過白江·炭峴)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階伯)을 보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가도록 하였다. 네 번 싸워 다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계백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於時) 군사를 모아 웅진강 어귀(熊津江口)를 막고 강가에 둔척시키니 소정방이 왼쪽으로 나와서 산에 올라 진을 치매(正方出左涯乘山而陳) 그들과 싸워서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이때 조수가 밀려와 ... 정방과 보병·기병이 곧장 달려 진도 30리 지점에 멈추었다(一舍止).⁶³⁾

D-② 7월 9일 유신 등이 황산벌로 진군하니 백제 장군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거(據)하여 3영(營)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이 군사를 3도(分軍爲三道)로 나누어 네 번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고 군사들은 힘이 다 빠졌다. ...관창(官昌)이 말을 타고 창 한 개를 들고 바로 적진에 달려들었으나 적군에게 잡혀 산 채로 계백에게 보내졌다. ...삼군(三軍)이 [관창의 머리가 잘려 돌아온 것]이를 보고 분개하여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진격하니 백제의 군사들이 패하여 계백은 여기서 죽고 좌평 들로서 충상(忠常)·상영(常永) 등 20여 명을 사로잡았다. 이날(是日) 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伎伐浦)에 이르러 백제의 군사를 역격(逆擊)하여 크게 이겼다. 유신 등이 당나라 군영에 이르니 정방은 유신 등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신라 독군(督軍) 김문영의 목을 군문에서 베려 함에 김유신이...⁶⁴⁾

63)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20년.

D-③ 소정방이 웅진강 어귀(熊津江口)에 이르자 적이 강을 지키고(屯兵據江) 있었다. 정방은 동쪽 언덕으로 올라(升東岸) 산에 진을 치고(乘山而陳) 적군과 대전을 벌였다. ...마침 조류가 밀려와 수록으로 함께 진격(水陸齊進) 곧장 사비도성으로 달려(直趨眞都) 20리 안 되는 지점까지 갔다(去城二十許里).⁶⁵⁾

D-④ 소정방 김인문 등이 바닷가로부터 의벌포(沿海入依伐浦)에 이르니 해안의 진법에 빠져 행군을 할 수 없으므로 버들자리를 깔고 군사를 상륙시켜 당나 두 나라 군사가 협력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⁶⁶⁾

먼저 황산벌 전투에 대한 검토이다. 사료 D-①의 “已過白江·炭峴” 소식을 듣고 의자왕은 계백을 출동시켰다. 계백은 황산까지 이동하여 전투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7월 9일 김유신을 만났다. 사비도성에서 황산벌까지는 26km로 명령수령/출동준비/급속이동/삼영설치까지 최소한 2일은 소요됨으로 계백은 7월 6~7일에는 사비도성을 출발했을 것이다. 탄현을 국경지대로 비정하면 신라군이 탄현을 넘은 시간은 7월 4~5일이 된다. 하지만 사료 D-②에서 당군은 7월 9일 기벌포=백강=웅진강구⁶⁷⁾에 도착했다. 사료 D-①의 “已過白江·炭峴”을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로 해석하면 타당하지 않고 백제의 대응도 너무 늦다.

이과(已過)의 “已” 자를 ‘곧, 이윽고, 오래지 않아, 뒤이어, 얼마 되지 아니하여’로 해석하여야⁶⁸⁾ 타당하다. ‘오래지 않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등의 용례로 쓰인 사례는 『사기』 항우 본기에서도 발견된다.⁶⁹⁾ 이 해석에 따라 “곧 탄현과 백강을 지날 것”이라고 한다면 탄현의 위치는 백제의 국경지대라기보다 황산벌과 사비도성 사이의 어느 지점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다. 즉 의자왕은 신라군과 당군이 “곧, 얼마 되지 않아 탄현과 백강을 지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미리 계백을 출동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황산벌 전투 현장을 논하고 있으므로 탄현과 백강의 다양한 설⁷⁰⁾만 소개한다.

다음은 위기 상황에 백제는 왜 계백에게 5,0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주었을까? 이에 대해 기벌포의 당군을 막는데 주력을 배치하고 계백에게는 신라군의 진군을 늦추도록 했다는 연구⁷¹⁾가 있다. 하지만 D-①의 “이때 병력을 모아 강가에 배치 웅진강구를 막았다(於是⁷²⁾合兵禦熊津江口濱江屯兵)”로 보아 주력을 배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벌포 즉 웅진강구에서 죽

6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년.

65) 『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

66)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67) B-⑤와 D-②,③는 기벌포=백강=웅진강구, 『신당서』는 웅진강구가 웅진구로 표기되어 있다.

68) 金元中, 1996 ; 檀國大東洋學研究所, 2003, 669쪽 참조.

69) “廢以爲侯, 已又殺之” 廢位하고 제후로 삼고 오래지 않아 또 그를 죽였다(『史記』項羽本紀).

70) 탄현의 위치는 ① 보은의 옥천설, ② 대전동쪽 마도령의 원치설, ③ 진잠의 흑석동 산성설, ④ 금산의 운주면설, ⑤ 운주삼거리설, ⑥ 금산 교촌리설, ⑦ 부여 석성면 정각리~중산리 숲 고개설 등 다양하고 백강 또한 ① 서천 장항설, ② 군산설, ③ 동진강 계화도설, ④ 금강이 석성천과 만나는 고다진 설 등 다양하며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71) 이문기, 1998, 281쪽. ; 문동석, 2016, 52쪽.

72) 於是를 황산벌 전투 후로 보아 남은 병력을 모아 웅진강구를 막았다고 해석된다.

은 백제군이 황산벌과 유사한 수천이고 인술한 장군 기록도 없다. 주력을 어딘가에 조기 투입 시켰기 때문에 왕성 방호 인력을 제외하고 출동병력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추정⁷³⁾된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계백의 3명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D-②의 ‘거험(據險)’을 근거로 3명을 연산면 신양리~연산리 일대 세 개의 산성을 지목하였다.⁷⁴⁾ 그러나 최근에는 3명을 평지에 설치한 진영으로 보고 있다.⁷⁵⁾ 산성전이었다면 김유신은 7월 10일 당군과의 약속 일자를 맞추기 위해 견제 부대를 산성에 남겨놓고 본대는 약속 장소로 기동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료에 황산지원(黃山之原)으로 표기된 내용이나 관창이 단기필마로 진격했던 모습에서도 산성이 아닌 평야에서 신라군의 진격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계백은 신라군의 진군을 지연시켜 당군과의 합군을 막고, 북방에 투입된 주력부대의 복귀시간⁷⁶⁾을 벌 수 있는 지연전을 위해 산성 등 험지를 배후에 둔 1~2부 능선에 진을 친 것이다.

한편 B-③에서 홍수가 “만약 평원광야에서 대진한다면 승부를 알 수 없다.”며 탄현이라는 요충지를 주문하였다. 이는 평상시에 백제가 산성보다는 평원광야에서 전투한 예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먼저 신라군의 황산벌 진입 방향을 살펴보자. 신라군이 연산면 황산벌에 이를 때 북쪽 개태사 방향이라는 견해⁷⁷⁾와 북쪽 계룡~개태사 경유, 동쪽 한삼천리~황령재 경유, 남쪽 양촌면 산직리와 신흥리 경유 등 여러 루트로 보는 견해⁷⁸⁾가 있다. 물론 대부대가 1개 통로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양촌면을 경유하려면 대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아니면 금산을 통해 백제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추정되는데 금산일대는 백제 산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진입로로 보기 어렵다.⁷⁹⁾ 주력부대는 경기도 이천에서 남하하여 보은의 삼년산성을 경유⁸⁰⁾하여 옥천~마도령~대전 흑석동 진현성(眞峴城)⁸¹⁾~개태사⁸²⁾~연산으로 들어섰고, 일부는 대전 흑석동~황령재~연산으로 진군했을 것이다.

신라군이 연산 일대로 진입한 것은 당군과 약속한 합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지금까

73) 이상훈, 2016, 68쪽 ; 박노석, 2010, 369쪽.

74) 홍사준은 동쪽 황령산성·산직리산성·웅치산성으로 보았고, 지현영은 북쪽 황산성·청동리산성·외성리산성으로, 전영래는 남쪽 갈마산성·신흥리산성·황령산성으로, 성주탁은 동쪽과 남쪽의 황령산성·산직리산성·신흥리산성을 보았다(이상훈, 2021, 89-90쪽).

75) 서정석, 2010, 21쪽 ; 남정호, 2018, 121쪽 ; 이상훈, 2021, 93쪽.

76) 박노석, 2010, 370쪽.

77) 서정석, 2010, 13쪽.

78) 이상훈, 2021, 107쪽.

79) 무열왕이 사비성에서 금돌성에 이를 때 금산을 경유하면 최적이거나 30km 북쪽에 위치한 삼년산성을 거쳤다는 것은 금산방면으로 교통로가 없다는 것이다(이재준, 2017, 123쪽).

80) 양기석, 2001, 217쪽.

81) 진현성은 일명 대전시 흑석동 산성으로 사비도성 함락 후 신라가 응진도독부(사비도성)에 대한 보급로 역할을 하던 운량도(運糧道)로서 백제 부흥군은 진현성에 근거하여 신라군의 보급을 661년 11월부터 662년 7월까지 9개월간 차단하였으며 이곳은 대전 갑천변을 따라 계룡~개태사~연산에 이르는 주요 길목이다(이재준, 2017, 287쪽).

82) 개태사는 일리천 전투에서 패하고 전주로 퇴각하던 후백제 신검군과 싸워 항복 받은 것을 기념하려고 고려태조 23년 940년에 건립된 절이다. 개태사 뒷산은 원래 의자왕이 계백을 보냈다는 황산(黃山)이었는데 하늘이 도와줬다고 하여 왕건이 천호산(天護山)으로 개칭하였다.

지 대부분 연구는 합군 지점을 강경일대로 보고 있지만 강경으로 가려면 신라군은 연산에서 남쪽 즉 논산천 이남으로 기동해야 한다. 강경은 합군 지점이 될 수 없다.⁸³⁾ 사료 D-③ 이십허리(二十許里)를 고려하면 석성천 이북 현내리 일대⁸⁴⁾로 추정된다. 석성천 이북 현내리 일대로 가려면 연산 삼거리에서 연산천을 따라가다 석성천 북단으로 기동해야 한다. 계백의 3영은 신라군이 합군 지점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황산벌은 연산면 연산삼거리 일대이며, 3영은 연산천 진입로를 통제할 수 있는 와지선이었을 것이다.

황산벌에서의 백제군과 신라군의 전투 모습은 어떠했을까? 신라군은 정병(精兵) 5만이라고 했다. 정병의 행군 제대편성은 기마부대가 편제되었을 것이다. 기마부대는 선발대였을 것이며 보병부대가 뒤따랐을 것이다.⁸⁵⁾ 전투 시에는 먼저 도착한 보병과 함께 보기(步騎) 협동으로 공격했을 것이다. 계백의 3영 전체를 4번 공격했는지 3영을 따로따로 한 번씩 공격해서 4번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험지를 배후에 두고 진을 친 백제군은 험지로부터 측·후방을 보호받을 수 있어⁸⁶⁾ 신라군을 4번이나 이겨냈다고 추정된다. 더불어 신라군은 5월 26일 경주를 출발한 이래 경기도 이천을 거쳐 7월 9일 황산벌에 도착할 때까지 40일이 넘는 긴 행군의 피로가 누적되어 4번씩 패했다. 결국 관창의 죽음으로 키워진 적개심과 5만 보병 본대가 다 도착하면서 전열을 정비한 신라군에게 백제는 중과부적⁸⁷⁾으로 무너졌다고 추정된다.

계백이 5,000밖에 안되는 병력을 인솔한 것은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조기 투입 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백은 산성이 아닌 황산벌을 결전장으로 선정하여 신라군의 진출을 막고 당군과의 합류를 저지하며, 주력부대가 북방에서 귀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지연전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백제가 당군과 벌인 기벌포 전투에 관한 검토이다. 사료 D-②, ③의 키워드⁸⁸⁾로 정리하면 ‘7월 9일 기벌포에 도착한 소정방은 백제군을 지나 [버들자리를 깔고] 좌측(동쪽)으로 하선하여 산에 올라 진을 치고 역으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때마침 조류가 밀려와 보병·기병과 전선이 수록병진으로 사비도성까지 곧장 달려 20리 못 미치는 지점에 [7월 10일]⁸⁹⁾ 도착하였다’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웅진강구=기벌포로 인식되는 서천 방향으로 상

83) 합군지점은 사료 D-③는 물론 『자치통감』에도 20리가 안 되는 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은 『신당서』의 1舍 즉 30리를 근거로 사비로부터 15km가 넘는 강경이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강경은 사비로부터 30리가 넘는 문제도 있지만 작전대기 지점으로 부적절하다. 차후 작전을 고려하면 논산천과 석성천을 지나 북단에서 합류하여야 한다.

84) 이재준, 2023, 84쪽.

85) 이상훈, 2021, 101쪽.

86) 서정석, 2010, 21~22쪽.

87) 사료 D-②에 계백의 관동 달솔보다 상위 직책인 좌평 충상과 상영이 함께 출동했으므로 황산벌에 5,000명이 아니고 계백, 충상, 상영이 각각 5,000씩 인솔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이문기, 1998, 282쪽) 관창을 돌려 보낸 것은 계백이므로 계백이 군령권을 가진 최고 사령관이며 좌평은 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수용하기 어렵다.

88) 상륙과 관련된 키워드는 伎伐浦, 熊津江口, 是日(7월 9일), 20許里, 一舍止, 出, 左涯, 東岸, 乘山而陳, 逆擊, 大敗, 步·騎, 水陸齊陳, 直趣眞都 등이 있다.

89) 『구당서』에는 20허리, 『신당서』는 30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7월 10일은 소정방이 덕물도에

륙했다거나 계화도에 상륙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⁹⁰⁾ 군사학적이라는 연구 중엔 서천 기벌포를 지나쳐 군산에 상륙⁹¹⁾했다거나 또는 옹포지역에 상륙했다고 보기도 한다.⁹²⁾ 그리고 소정방이 올랐다는 산을 군산 오성산이라고도 한다.⁹³⁾ 하지만 상륙 후 합군 지점까지 단 하루 만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행군거리가 4~5일이 되고 사료의 좌안이나 동안 또는 역격 등 사료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웅진강구는 660년 소정방 상륙지점이면서 661년 백제 부흥군 도침이 유인케를 막기 위하여 양책을 세우고 다리로 연결했다는 곳도 웅진강구이다. 이 기사 역시 기벌포=웅진강구는 서천이 될 수 없다.⁹⁴⁾

그러면 소정방의 유사한 전투사례를 살펴보자. 바로 이듬해인 661년 소정방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음산을 탈취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마음산을 대부분 평양 근교로 추정한다.⁹⁵⁾ 그러한 소정방이 1년 전에 백제를 공격할 때 고구려와 달리 강 수로 변에 위치한 서천이나 군산과 같은 금강 입구에 상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구려 침공 시와 유사하게 최대한 사비도성 가까이 상륙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료 D-①과 같이 백제가 급히 군사를 모아 웅진강구에 배치하였다고 할 때 50km가 넘는 서천까지 가서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 최적의 장소는 금강이 논산천과 갈라지는 강경 북쪽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로

서 태자 범민에게 제시한 시간이다. 조류 정황상 7월 9일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90) 서천으로 상륙해서는 부여까지 직선거리가 50여km로 고대 육군이 하루 만에 도착할 수가 없으며 사비도성으로 가기 위해 다시 강을 건너야 하므로 부적절하고, 기벌포가 동진강 앞 계화도라고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91) 군산으로 상륙한다면(김영관, 2007, 243~248쪽) 부여까지 60여km로 하루 만에 부여까지 도착할 수가 없으며, 중간에 산복천 등을 극복하여야 하는 등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92) 옹포지역에 상륙할 경우(남정호, 2018, 125쪽 ; 김주성, 2017, 356쪽) 강경까지 1일 행군거리는 타당할 수 있으나, 합군지점 설정이 잘못되었으며, 좌안(동안)에 부적합하고 소정방이 올라 진을 쳤다는 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백제군 수천을 격멸장소가 설명이 안 된다.

93) 소정방이 올라 지휘했던 산을 오성산(김영관, 2007, 250쪽)이라고 하지만 오성산은 부여까지 거리가 멀어 교두보로서 부적합하다.

94) 『구당서』 권84, 열전 34, 유인케 “661년 2월 [백제부흥군 사령관 도침은] 사비성(백제부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부성의 유인원이 꼼짝 못함으로 당 고종이 조서를 내려 유인케를 검교 대방주자사로 임명, 편도로 가서 신라병을 발동하여 구하도록 하였다”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당 조서를 받은] 신라는 대장군 품일이 7·8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유인원 구원에 나섰다. 품일은 중도에 군대를 나누어 두량윤성으로 가게하고 [자신은 유인케와 합류]...” ; 『구당서』 권199, 열전149, 백제 “유인케는 [품일이 인솔한] 신라병과 함께 웅진강구에서 백제군을 공격하니 다리가 좁아 싸우다 죽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1만여 명이었다. 도침은 포위를 풀로 임존성을 지켰다.” 에서 보면 품일은 먼저 군대를 나누어 두량윤성(청양 추정)으로 가게 하고 자신은 유인케와 웅진강구에서 합류하였는데 품일이 금강 입구까지 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침이 포위한 백제부성 지휘를 방기하고 서천 앞바다(웅진강구)까지 갔다고 볼 수 없고, 서천 앞바다에 다리를 놓고 양책을 쳤다고 볼 수 없다. 웅진강구는 서천 앞바다가 될 수 없다.

95) 마음산은 三國史記에 미상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은 평양 서남쪽으로, 안정복의 東史綱目이나 한치윤의 海東歷史 및 이병도의 역주 삼국사기에도 평양 서쪽 근교라고 되어 있으나 마음산의 입지 조건으로 평양성과 대동강 하구 사이, 평양성 서남쪽, 수로와 연결된 곳, 교두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곳 등 7가지를 검토한 결과 평양으로부터 약 60여리 이격된 서화산과 정이산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상훈, 2021, 202~223쪽).

추정된다.⁹⁶⁾ 하지만 소정방은 이를 지나쳐 석성천 방향으로 상륙하였다. 이 지역은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반도전도」에 이녕(泥寧) 즉 진흙 벌이 표시되어 있다.⁹⁷⁾ 사료의 좌안(동안)과 일치한다. 사료 D-④의 沿海入依伐浦를 살펴보자.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현재 전답으로 보이는 강경 앞의 논산천 일대는 습지 내지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⁹⁸⁾ 또한 이일대가 바닷물에 잠겼다는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연구부장의 증언⁹⁹⁾과 7세기경에는 서해의 해수면 수위가 1m~1.5m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강경 일대는 바다와 같은 지역이었을 것이다. 소정방이 올랐다는 산은 앞서 기술한 장군동 전설이 전해지는 파진산으로 추정된다. 파진산에 진을 친 소정방은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 배치된 백제군을 뒤로부터 공격하였다. 이를 사료는 역격(逆擊)¹⁰⁰⁾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사료 D-③와 같이 마침 조류를 만나¹⁰¹⁾ 수륙양면으로 진도성을 향해 달렸다. 상륙 및 전투 시간은 아마도 간조 시간대인 오후 3시 전후한 시간이며, 집결지 도착시간은 만조 시간대인 저녁 9시 이후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벌포는 석성천 일대로 비정되며, 웅진강구는 웅진강의 입구라고 볼 때 당시 편찬자들은 백제식 강 명칭을 사용하여 웅진으로부터 사비 구간을 웅진강¹⁰²⁾으로 그 이후를 백강으로 백제식 강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³⁾ 한편 석성천 일대와 논산시 성동면 일대에도 『삼국유사』에 기벌포를 장암 또는 손량, 지화포라고 한 지명과 유사한 지명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성충의 옥중 서신에 강의 상류라고 칭

96) 이곳은 당군이 수도 사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소이자 진입 불가 시에 논산천으로 이동 신라군과 합군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백제 입장에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곳이다.

97) 18세기 이종환은 논산의 노성, 연산, 은진과 부여의 석성 등 네 고을의 냇물과 골에 배가 통행한 것은 강경에 조수가 드나들기(이종환(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실제 1934년 조선총독부가 검측한 강경의 평균조위는 썰물 때 -2.0m, 밀물 때에는 +2.0m로 간만의 수위차가 4m인데 큰사리 때에는 이보다 더 컸다(이철성, 2015, 186쪽).

98) 논산 강경에서 상습홍수가 있었으며, 침수 기간은 12일, 침수 면적은 6,630여 정보, 피해액은 최고 496,000엔으로 금강 유역 중 최고였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治水及水利踏査書』, 1920, 第2編 第2章 錦江 水害狀況). 이런 이유로 1922년 5월 착공하여 1924년 강경천 제방공사에 있었고(坂上富藏, 『江景事情』, 1928) 1930년대 논산천과 강경천 제방공사가 있었다(이철성, 2015, 184쪽).

99) 현지 답사한 2024년 5월 18일 강경 문화원 김무길 연구부장(1942년생)은 불암산 아래 제방이 없었을 때는 강경 일대는 물론 논산천과 논산까지 바닷물에 잠기곤 했다고 증언하였다.

100) 逆擊의 역을 ‘마주하다’로 보아 백제군과 맞서 싸웠다고 해석하지만, 병력이 배치된 지역으로 상륙하는 현장 지휘관은 없으며 逆擊은 뒤에서 공격했다는 군사용어로 보아야 한다.

101) 소정방은 백제군을 대파하고 마침 조류를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백제군이 배치된 지역을 통과할 당시는 간조 시간대인 오후 3시 전후한 시간이었을 것(국립해양조사원 : 1300년 전에 해수면 높이는 차이가 있으나 조수 간만 시간은 유사하며 2015년 음력 7월 9일 장항지역 조석에 보는 01:44(212m)▼, 07:14(599m)▲, 14:01(182m) ▼, 19:52 (586m)▲)이다.

102) 웅진강이라는 명칭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백제 동성왕 20년에 웅진교(熊津橋)를 가설했다는 기록과 고려 태조 23년(940)에 웅주를 공주로 바꾸고 강의 명칭도 ‘웅진강’에서 ‘공주강’으로 바꾸어 불렀다는 기록을 유추해보면 300년 전인 백제시대에 공주 앞을 지나는 강을 웅진강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계준, 2023, 87쪽).

103) 『구당서』 등에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갔다는 표현 등을 볼 때 중국식 강 명칭(발원지-하구 통칭)이 아닌 백제식 강 명칭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한¹⁰⁴⁾ 말을 상기하면 기벌포는 서천이 될 수 없고 상류인 석성천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백제는 당진으로 상륙한 당군에 대비하여 주력을 북방으로 조기 투입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주력부대의 복귀가 있기 전에¹⁰⁵⁾ 사비성이 함락되었고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하여 주력부대의 복귀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계 웅진방령 예식의 반란으로 의자왕이 사로 잡혀 사비성으로 끌려와 660년 7월 18일 항복하였다. 황산벌 전투와 웅진구 전투가 벌어진 7월 9일로부터 단 10일 만이었다.

V. 백제 부흥군의 항전

의자왕이 항복하고 신라의 무열왕과 당나라 소정방은 8월 2일 의자왕으로부터 항복례를 받으면서 왕으로 하여금 하단에서 당상의 장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다. 이때 의자왕의 굴욕적인 모습과 도륙을 일삼는 현장을 목격하고 항복례에 참석했던 흑치상지는 좌우 추장 10여 명과 함께 도망하여 예하 풍달군 병력을 이끌고 입존성에서 거병한 복신에게 호응하였다.¹⁰⁶⁾ 열흘이 안 되어 3만이나 되는 병력이 모였다. 이들은 북방으로 조기 투입되었던 주력부대로 추정된다. 두시원악에서는 좌평 정무가 구마노리성에서는 달솔 여자진이 거병하였다. 소정방은 8월 26일 병력을 보내 입존성의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어 소정방은 의자왕과 귀족·관료·백성 등 12,807명을 데리고 9월 3일 당나라로 돌아가면서 유인원 등 당군 1만 명과 왕자 인태 등 신라군 7천 명이 사비성 즉 웅진도독부를 지키도록 하였다. 신라 무열왕도 삼년산성을 경유하여 경주로 돌아가고 있었다.¹⁰⁷⁾

예산 입존성에서 백제 부흥을 위해 거병한 백제 유민들은 당군과 신라군이 점령한 웅진도독부는 물론 당나라와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갔다. 전쟁은 입존성이 함락될 때까지 약 3년 4개월간이나 이어졌고 한때는 백제의 200여 성을 회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¹⁰⁸⁾ 연구자들은 이를 대부분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운동(Demonstration)이 아닌 엄연한 백제 부흥전쟁¹⁰⁹⁾으로 나당연합군에 대한 백제 부흥군의 항전이었다.

백제 부흥군이 수행한 여러 전투¹¹⁰⁾를 전략적 차원으로 크게 구분해보면 직접전략과 연합

104)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15년, 成忠臨終上書 “凡用兵 必審擇其地 處上流以延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沈峴 水軍不使仗伐浦之岸 舉其險隘以於之...”

105) 박노석, 2010, 372쪽.

106)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10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년 ; 12,807명은 『삼국유사』 권1.

108) 『구당서』 권109, 열전53, 흑치상지 ; 『자치통감』 권200, 당기17, 용삭3년.

109) 전쟁은 2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합동·연합작전 용어집』, 2010, 312쪽)로 정의되고, 왜에서는 661년 9월 풍장이 왜국에서 귀국하여 왕이 된 후에는 백제왕으로 표기하여 부흥 백제국을 국가로 인정하였다(『일본서기』 권27, 천지 원년).

110) 여러 전투는 백제부성 포위공격, 보급로 차단작전, 661년 군영설치 신라군 기습공격, 빈골

전략인데 전자는 2회에 걸친 웅진도독부 직접 공격과 웅진도독부를 고사시키는 3회에 걸친 보급로 차단 작전이었다. 후자는 고구려 및 왜와 연합한 연합작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작전과 전술의 차이로 모두 실패하였으나 면면을 살펴보면 현대전과도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부합된 고도의 군사전략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백제 부흥군은 철수 길에 오른 당군이 당에 도착하고 신라군이 금강을 건너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9월 23일 백제부성 공격을 시작하였다. 백제 부흥군은 신라군의 투입 예상 길목인 이례성에 진초부대, 사비남령에 저지부대를 배치하고 백제부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 4개 성책을 쌓아 공격하며 군자를 탈취하기도 하였다.¹¹¹⁾ 지휘소 내지는 후방지원 본부는 왕흥사 잠성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1일 고구려가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한 기록을¹¹²⁾ 볼 때 고구려와도 사전에 협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부흥군의 공격으로 부성의 당군과 신라군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¹¹³⁾ 소식을 들은 무열왕은 회군하여 10월 9일 이례성을 쳐서 18일에 함락시키고 30일에 사비남령을 평정하였으며 11월 7일 왕흥사 잠성을 함락시켰다. 이 전투에서 부흥군은 약 2,200여 명의 손실이 있었다. 무열왕의 회군 규모는 알 수 없지만 9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투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쌍방의 전투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무열왕은 경주로 복귀하여 논공행상을 단행했다.¹¹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661년 1월 부흥군의 복진은 강 동쪽을 침범하였다.¹¹⁵⁾ 2월에 도침과 복진은 백제부성을 포위하고 1차와 달리 사비도성의 나성을 넘어 중부까지 진출하여 운제로 굽어보고 포차를 설치 맹공을 퍼부으며 땅굴을 파고들기도 하였다.¹¹⁶⁾ 이때 신라의 품일과 당의 유인궤가 증원되어 오자 부흥군 사령관 도침은 이들의 합류를 막고자 웅진구에 양책을¹¹⁷⁾ 설치하고 방어하다가 다리가 좁아 물에 빠지거나 싸우다 죽는 등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임존성으로 퇴각하였다. 2차 부성 공격 시 신라군은 품일 등 11명의 장군이 출동하였다. 품일은 3월 5일 중로에 병력을 나누어 먼저 가서 두량윤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본대는 웅진구에서 당의 유인궤와 합세하여 도침의 양책을 격파하고 이어 백제부성의 포위를 풀었다. 12일에 신

양/각산 조우전, 임존/이례/왕흥사잠성/거열/거물/사평/덕안성 등 전투 기록은 농성으로, 웅산/우술/지라/윤성/대산책/사정책/진현성/내사지성 등은 차단 및 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11, 답설인귀서.

11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

11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11, 답설인귀서.

11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무열왕 7년.

115) 답설인귀서에 의하면 이때 출동한 당군 1천 명이 모두 죽었다.

116) 「당 유인원 기공비」 “漸入中部...攻圍留連. 雲梯俯瞰 地道旁通 擊石飛矢 星奔雨落 晝夜連戰 朝夕憑陵...閑然高枕 不與爭鋒...曠日持久”.

117) 웅진구(웅진강구)의 양책은 대부분 연구자가 금강하구로 보지만 금강 하구에 양책을 다리로 연결할 만한 지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백제부성을 포위한 도침이 60km나 이격된 서천~군산 지역까지 가서 양군의 합류를 막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라 품일이 선박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고 구원군이 포위된 사비성을 방치하고 군산까지 갔다고 볼 수도 없어 웅진구는 금강의 강경과 석성천 사이로 추정한다(이계준, 2023, 96-98쪽).

라군은 고사비성¹¹⁸⁾ 밖에 진을 설치하고 두량윤성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자 4월 19일 군대를 돌려 철수하다가 빈골양에 이르러 백제군을 만나 대패하고 많은 병장기와 군수물자를 잃었다.¹¹⁹⁾ 5월 9일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 장군 생해(生偕)와 함께 신라의 술천성을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자 북산산성을 20여 일간 공격하였다.¹²⁰⁾ 이 또한 백제 부흥군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사기』 기록이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은 직접전략인 2차례 백제부성 포위공격 시 전체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1만여 명 이상을 잃었다.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2만여 부흥군으로 백제부성의 17,000여 나·당군을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직접전략에서 백제부성을 고립시키는 전략 즉 신라로부터 웅진도독부로 수송되고 있는 보급로를¹²¹⁾ 차단하기로 하였다.

신라에서는 661년 6월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이 즉위했다.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공격하는 당군을 돕기 위해 7월 17일 경주를 출발한 김유신이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갔다. 뒤이어 출동한 문무왕이 시이곡정(始飴谷停)에 도달했을 때 앞에서 부흥군이 웅산성(甕山城)¹²²⁾에서 길을 막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 백제 부흥군에 의한 1차 보급로 차단작전이었다.

이에 문무왕은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갔던 김유신을 불러내려, 9월 25일 웅산성을 공격하여 27일에 수천 명을 참수하고, 품일이 우술성(雨述城)을 공격하여 천여 명을 참수하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은 고구려로 진격하지 않고 웅현성을 쌓았고, 당나라 사신이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9일 경주로 돌아왔다.¹²³⁾ 운량도가 개통되었다고 생각했으나 평양 공급 때문에 노약자로 출발시킨 군량수송부대가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하고 12월에 또다시 웅진의 식량이 떨어졌다고 보고 되었다.¹²⁴⁾

백제 부흥군이 2차로 흑석동 산성인 진현성(眞峴城)을 비롯한 5개 성을 점거하고 경주로부터 웅진도독부의 군량수송을 차단한 것이다. 부흥군의 차단작전은 성공적이어서 백제부성의 식량난이 심해졌고 당 고종은 ‘신라에 가서 의탁하던지 아니면 돌아오라’는 칙서를 내릴 정도였다. 이를 알아차린 복신은 ‘대사 등은 언제 돌아갈 것인지 돌아간다면 마땅히 전송해 주겠노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당군은 고종의 칙서대로 당병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백제부성의 유인책은 ‘함부로 움직이면 불귀의 객이 된다. 적

118) 古沙比城을 정음의 古沙城으로 보기도 하지만 古泗泌城의 오기로 본다(이재준, 2017, 253쪽).

11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8년.

12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8년(혹은 5월 11일이라고도 한다).

121) 보급로는 군량 수송로로서 『구당서』에 운량로, 『삼국사기』에 웅진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연구자들은 경주에서 공주로 가는 길로 보아왔으나 웅진도독부가 부여 사비성에서 웅진 공주로 옮겨 간 적이 없으므로 웅진도는 경주에서 사비로 가는 길로 보아야 한다(이재준, 2017, 257~274쪽).

122) 웅산성의 위치비정은 노성산성, 계족산성, 회인지역, 보은 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군사적 관점에서는 국경지대인 옥천군 군서면 지역으로 본다(이재준, 2017, 281쪽).

12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12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11, 답설인귀서.

당한 기회를 틈타 공취하면 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 662년 7월 지라성 등 4개 성과 진현성¹²⁵⁾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운량로를 개통하였다.

하지만 부흥군들은 3차로 내사지성(內斯只城)¹²⁶⁾에 다시 모여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사료에는 작악(作惡)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662년 8월 신라는 19명의 장군¹²⁷⁾을 투입하여 내사지성을 공격하였다. 성의 규모가 작는데 37,000여 명을 투입한 것은 백제군의 작악이 신라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직접전략에 이은 연합전략이다. 백제 부흥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던 지휘부에 내분이 일어났다. 풍왕이 복신을 처형한 것이다. 복신은 부흥군 거병의 핵심이면서 각종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 훌륭한 장수였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당과 신라가 대대적인 백제 부흥군 토벌에 나섰다. 당에서는 손인사가 170척의 전함에 7,000명의 증원군을 태우고 서해를 건너왔으며, 신라는 7월 17일 문무왕과 김유신 등 장군 28명(혹은 30명)이 경주에서 출발하였다. 수군을 제외하더라도 웅진도독부의 유인원 등 1만여 명을 합하면 6만 2천 명이 나 된다.¹²⁸⁾ 나당연합군이 총동원되고 백제 부흥군 소탕을 위한 회를 열었다. 이때 누군가가 주류성 공격에 앞서 수륙의 요충지인 가림성을 먼저 공격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유인원은 “가림성은 험하고 견고하니 주류성을 먼저 공격하느니만 못하다. 주류성을 함락시키면 못성들은 저절로 떨어질 것이다” 하여 주류성을 직접 공격하기로 하였다.¹²⁹⁾

이를 알아차린 풍왕도 고구려와 왜(일본)에게 구원을 요청한 듯하다. 백제 부흥군도 연합전략으로 맞선 것이다. 고구려 지원병으로 추정되는 수군은 서해에서 당 손인사에게 격멸되었다.¹³⁰⁾ 일본에서는 장수 노원군신(盧原君臣)이 건아 1만여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다.¹³¹⁾ 백제와 왜의 연합군과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백강구에서 대접전을 벌였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이 벌어졌다.

125) 진현성은 흑석동 산성으로, 사정책은 사정동 평창부락 뒷산으로 비정하며 지라성, 윤성, 대산 등은 대전 부근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이재준, 2017, 287~291쪽).

126) 奴斯只縣은 현 유성이며(『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심정보는 월평동산성으로 비정하고 성주탑은 구성리 산성으로 비정하였나 진현성과 같은 축선인 구성리 산성으로 추정한다.

127) 장군 1인당 1,500명을 계산하면 28,500명이 되고 전투근무지원부대 30%를 계산하면 8,500명으로 총합 37,050명이 된다(이상훈, 2012, 302쪽).

128) 웅진도독부 당군 1만, 신라군 7천, 문무왕 등 28~30 장군 4만5천 등 6만2천으로 추정된다.

129) 『구당서』 권84, 열전34, 유인원 “於是諸將會議 或曰 加林城水陸之衝 請先擊之 仁軌曰 加林城險固 急攻則傷損戰士 固守則用日持久 不如先攻周留城 周留 賊之巢穴 羣兇所聚 除惡務本 須拔其源 若剋周留 則諸城自下” ; 가림성은 부여군 임천면에 소재한 성으로 사비도성에서 금강을 건너야 한다. 즉 가림성은 주류성을 향한 공격로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가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금강을 도하 했으니 가림성부터 공격하자는 제안이었다. 분석하면 주류성은 금강 이북 충남지역에 위치함이 타당하며 전북 부안은 될 수 없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130) 『구당서』 권199, 열전149, 백제.

131) 풍왕이 주류성에서 전한 말에 의하면 1만여 명이다. 하지만 『일본서기』에 1만여 명 출발 기사는 없다. 이에 663년 3월에 27,000여 명이 신라를 치도록 했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이들 중 1만 명이라고 보기도 하고, 『삼국사기』 답 설인귀서에 왜선 1,000척이 백사에 정박했다는 기사를 근거로 백강구에 27,000명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유인궤가 인솔하는 170척으로부터 군량수송 지원을 받은 육군은 8월 13일 두술성을 함락시키고 8월 17일 주류성을 포위하였다.¹³²⁾ 당의 유인궤는 170척의 전선으로 백강구를 봉쇄하였다.¹³³⁾ 백제의 풍왕은 8월 13일 주류성을 나와 백촌에서 왜의 지원군을 기다렸다. 8월 27일에 먼저 도착한 왜의 선발대가 당수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8월 28일에 왜의 본대가 도착하여 기상을 고려하지 않고 대오가 흐트러진 중군(中軍)을 이끌고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당의 170척 전선이 왜의 400척 전선을 에워싸고 공격하자 왜의 선박은 뱃머리를 돌릴 틈도 없이 모두 불에 타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치솟았으며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⁴⁾ 나·당의 육군은 백제 부흥전쟁의 근거지 주류성(周留城)을 주요 목표로 공격하였으며, 왜군은 주류성을 구하기 위해 백강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당 수군이 먼저 백강구를 봉쇄함으로써 백강구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백강구 전투가 왜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게 되고 풍왕마저 고구려로 피신하게 되자 주류성은 고립무원 상황에서 9월 7일 함락되고 말았다.¹³⁵⁾

주류성 함락 후 나당군의 공격을 임존성은 한 달간이나 버텼다. 10월 21일까지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자 김유신은 군대를 돌려 11월 경주에 도착하였다.¹³⁶⁾ 신라군이 돌아간 뒤에 임존성의 흑치상지와 사타상여가 당군에 투항하였다. 당의 유인궤는 흑치상지와 사타상여에게 병력을 주어 임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끝까지 임존성을 지키던 지수신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¹³⁷⁾ 이처럼 663년 11월에 임존성마저 함락됨으로서 백제 부흥군이 연합전략으로 맞선 항전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VI. 맺음말

신라군이 경기도 이천에서 부여로 남하 행군하는 20일 동안 당군의 행적을 후대사료와 금석문, 전설 등을 토대로 군사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군은 우선 덕물도에서 소래산까지 해상 차단부대를 배치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신라 병마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후속하던 유인궤의 군량선이 풍랑에 침몰하여 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군은 당진에 있는 백제군 수군 창

132)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8월 13일 두술성에 이르러 항복시켰다는 기사가 주류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풍왕이 8월 13일 주류성에서 나오고 8월 17일 주류성을 포위했다는 『일본서기』 기록이 타당한 듯하다.

133)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134) 『일본서기』 권27, 천지2년 ;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135) 『일본서기』 권27, 천지2년.

136) 김유신 열전은 한 달간 임존성을 공격하다 11월 20일 경주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문무왕 3년 조는 10월 21일부터 공격하여 11월 4일 설리정에 왔다고 하였다. 동계기간임을 고려하면 11월 20일 경주 도착이 타당하고 임존성에서 경주까지 약 한 달 소요됨을 고려하면 10월 21일부터가 아닌 10월 21일까지로 사료를 재해석해야 한다(이재준, 2017, 338-339쪽).

137)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고를 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였다. 이후 예산 대술면 및 공주 유구읍 탐곡리까지 백제군을 속이기 위한 기동을 하였다. 이후 보령에서는 금석문에서 확인된 가림도 행군총관 시철위가 인솔하는 조공부대를 청양-부여-가림성 방향으로 투입하였다. 서천 앞바다에 도착한 당군은 서천과 군산 양안을 확보한 후 본대가 금강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백제군 병력 규모는 최소 6만에서 10만 명까지 추정된다. 백제는 신라가 북상할 때 병력을 동원하여 어디엔가 집결시키고 있었다. 집결된 주력부대를 놓고 백제 조정은 신라를 먼저 칠 것인지 아니면 당군을 먼저 칠 것인지를 토의했다. 당군이 백제 수군 창고를 탈취하고 공주-부여 방면으로 기동하자 주력부대를 투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백은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탄현과 백강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가 아닌, 곧 지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것으로 보였다. 탄현과 기벌포는 사비도성 가까이에 위치했음을 논증하였다. 기벌포=웅진강구는 강경을 지난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로부터 석성천 일대까지로 보였다. 소정방은 석성천으로 상륙하여 파진산에 올라 진을 치고 불암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백제군을 역으로 공격하여 대패시켰다. 한편 계백은 당군과 신라군의 합군을 막고 북방에 투입되었던 주력부대의 복귀시간을 벌기 위해 산성이 아닌 황산벌에서 지연전을 시도하여 4번 싸워 이겼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였다. 황산벌 3명의 위치는 양군의 합군지점인 석성면 현내리 일대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연산 삼거리로 추정하였다.

백제 멸망의 주요 원인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당군과 신라군이 북방에서 합류하고 당군이 당진의 백제 수군창고를 공격하고 예산 공주 방면으로 기동하자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투입시키는 과오를 범했다고 추정된다. 비록 의자왕은 항복하였으나 북방에 투입되었던 백제군과 백제 유민들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흥전쟁을 이어갔다. 663년 11월 임존성이 함락될 때까지 3년 4개월 간 부흥군은 2차례에 걸쳐 백제부성을 직접공격하였으며 전력이 약화되자 백제부성인 웅진도독부를 고립시키는 보급로 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내분으로 인한 나당의 총공세에 부흥군도 왜와 고구려에 병력지원을 요청하는 연합전략을 계획하여 동아시아의 최초 국제해전인 백강구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후 주류성과 임존성마저 함락당했다. 결국 백제는 663년 11월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투고일: 2024.10.23,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左傳』, 『史記』, 『일본서기』,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湖西邑誌』, 『擇里志』, 『大唐平百濟國碑銘』, 『祢仁秀 墓誌銘』, 『朝鮮半島全圖』, 『풍사훈비(馮師訓碑)』, 『治水及水利踏查書』, 『江景事情』.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 유래집—중부편』.

金元中, 1996, 『虛辭辭典』, 玄岩社, 1996

김수태, 1991,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22.

김영관, 1999,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과 백제의 방어전략』, 『STRATEGY』21.

김영관, 2012, 『中國 發見 百濟 遺民 祢氏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24.

김은영, 2015, 『청소년의 음용수 섭취와 식생활 습관 및 ADHD와의 관련성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중수, 2007, 『백제 군제의 성립과 정비』, 『역사교육』103.

김주성, 1988,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19.

김주성, 2017, 『660년 7월 8일간의 전투 재구성』, 『백제문화』56.

남정호, 2018, 『660년 백제의 방어전략 회의와 방어전 재검토』, 『전북사학』53.

노중국, 2003,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당진군, 1997, 『당진군지』상, 상록동양인쇄문화.

문동석, 2016, 『660년 7월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 『신라사학보』38.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민덕식, 2002, 『唐 柴將軍 精舍草堂碑에 관한 檢討』, 『백제문화』31.

박노석, 2010, 『백제 황산벌 전투와 멸망 과정의 재조명』, 『인문과학연구』27.

박현숙, 1998, 『백제 군사조직의 정비와 그 성격』, 『사총』47.

방용철, 2016, 『여·제 연화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62.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서정석, 1992, 『충남지역 백제산성에 대한 일연구』, 『백제문화』22.

서정석, 2010,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 전투의 실상』, 『군사』76.

성주탁, 1974, 『대전부근 古代城址考』, 『백제연구』5.

심정보, 1989, 『대전의 고대산성』, 『백제연구』20.

양기석, 2001, 『삼년산성의 역사성과 연구성과』, 『삼년산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양종국, 2004, 『백제 멸망의 진실』, 주류성.

양종국, 2012, 『백제 의자왕대의 정치와 對中外交의 성격 검토』, 『백제문화』47.

윤명철, 2012, 『당진의 고대 해양도시적인 성격 검토와 항로』, 『동아시아고대학』29.

윤일영, 2009, 『고대선박의 항해속도 연구—고려도경을 중심으로』, 『군사학연구』7.

- 윤진석, 2022, 「백제 멸망기 ‘태자’문제 보론(補論)」, 『북약사론』15.
- 이문기, 1998,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28.
- 이문기, 2016, 「648-649 신라의 대 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47.
- 이민수, 2020, 「백제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계획」, 『고대군사사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 이병렬·조기호, 2003, 「7세기 동아시아 국제대전과 백제멸망관 재고찰」, 『인문학논총』3.
- 이상훈, 2012,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 이상훈, 2016,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멸망」, 『역사와 실학』59.
- 이상훈, 2021, 『신라의 삼국통일』, 민속원.
- 이상훈, 2021,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60.
- 이재준, 2016,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인 연구」, 『군사』 98.
- 이재준, 2017, 『백제 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 이재준, 2023, 「백제 기벌포 위치비정에 관하여」, 『북약사론』18.
- 이철성, 2015, 「19세기 강경의 공간적 특징과 생활상」, 『조선시대사학보』75.
- 이희진, 2001, 「백제 멸망과정에서 나타난 군사사상의 재검토」, 『사학연구』64.
- 장미애, 2013, 「백제말 정치세력과 백제의 멸망」, 『백제문화』58.
- 장학근, 2002,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본 나·당 연합군과 백제의 전쟁」, 『해양연구논총』29.
- 주보든, 2017,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126.
- 충남역사문화원, 2008, 『백제사료자료 역주집-일본편-』, 아디람.
-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논산시, 2000, 『논산황산벌전적지』, 현대읍 인쇄사.
- 홍사준, 1967, 「탄현고」, 『역사학보』35·36.
- 황인덕, 2000, 「천방사(千房寺)전설과 백제말기 역사상황」, 『백제연구』32.
-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 今西龍,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 今西龍, 1970,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Abstract】

Nadang Allied Forces and Baekje War

Lee, Jae-joon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This study seeks a military review of the war between the Silla-Tang allied forces and Baekje. From June 21 to July 10, 660, the Tang army attacked the Baekje naval warehouse to secure insufficient food. Afterwards, it was misguidedly maneuvered toward Gongju. Afterwards, while sailing off the coast, the tribute unit was maneuvered in the direction of Garimseong Fortress in the Boryeong area. Sojeongbang, the main force, landed in the area of Seokseongcheon, not in the sea off Seocheon. The Tang and Silla armies joined from Hyeonnae-ri, Seokseong-myeon, not from Ganggyeong. Silla's 50,000 troops moved to Icheon, Gyeonggi-do, under the direction of the Tang Dynasty. As a result, this was a double operation that the Baekje army deceived.

Baekje confirmed the movement of the Silla army's Namcheonjeong Pavilion and mobilized troops. When the Tang army attacked the Baekje naval warehouse, they mistook it as an attack from the north and sent their main forces north. Therefore, Baekje sent 5,000 troops to the battle of Hwangsan Beol and lost. The Tang army fought and lost in Seokseongcheon. When the Nadang Allied Forces attacked, King Uija fled to Woongjin Castle. However, due to Woongjin Castle's rebellion, King Uija surrendered. Baekje surrendered, but the Baekje army, which was sent to the north, continued the Baekje Revival War for three years and four months. The battle was carried out until November 662, the second and third direct attacks by Baekje's Ministry. When the Nadang army came to the offensive, they united with the Japanese and greatly lost the Battle of Baekgang-gu, and finally collapsed in November 663.

Keywords : Sojeongbang, Kim Yu-shin, Gyebaek, King Uija, Baekje Revival War